

전남 아파트 전세 얻기 가장 빠르다

월급 전액 모으면 1년2개월 만에 마련

광주 1년11개월…광역시중 가장 짧아

전남지역이 아파트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남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057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은 8490만원으로 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71만3000원임을 감안하면 전남은 13.6배, 광주는 22.8배 수준이다.

이들이 월급을 한 편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1년2개월과 1년 11개월 걸리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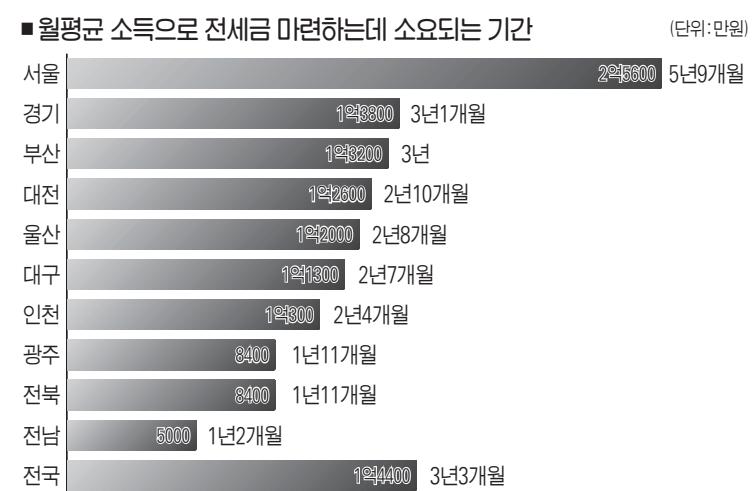
전국 평균 전세가격 1억4473만원으로 3년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전남은 이를 크게 밟들었다.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기간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짧았고,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짧았다.

전세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2억5643만원이었다. 서울시민은 월급을 전부 모아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면 5년8개월 걸린다는 계산이다. 이어 경기지역이 1억3871만원으로 3년1개월, 부산 1억3223만원으로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세가가 1억2633만원으로 조사된 대전은 2년10개월, 울산(1억2000만원)은 2년8개월, 대구(1억1366만원)는 2년7개월, 경남(1억1695만원)은 2년5개월, 인천(1억3222만원) 2년4개월, 제주(9136만원)는 2년1개월로, 이를 지역은 2년 이상 걸렸다.

다만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면적대와 새 아파트 여부에 따라 전세금 마련 기간에 차이



를 보였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광주·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가 낮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시생활활주택 등을 통한 단기공급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폭증했다.

또한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13.6% 늘어난 1200만9000TEU를 처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이어 광양항은 1.5% 감소한 153만7000TEU, 인천항은 4.2% 증가한 145만5000TEU를 처리했다. 3분기까지 세계 10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난 1억4024만TEU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0.0% 증가한 2376만8000TEU를 처리한 상하이항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부산항은 세계 5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3분기까지 항만물동량 작년보다 8.1% 증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9억6218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고 국토해양부가 26일 밝혔다.

항만별로는 평택·당진항과 울산항, 부산항은 무연탄과 유류, 섬유류 등의 수출입 증가로 29.1%, 12.1%,

11.7% 각각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유류, 양곡 등 수출입 물량 감소로 0.3% 감소했다. 유류와 자동차, 철재 처리 물량은 11.4%, 10.6%, 10.4% 씩 늘었고, 화공품과 모래는 각각 9.7%, 4.6% 줄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10.8% 늘어난 1593만5000TEU를 기록, 사상 처음

1500만TEU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로 잡은 2000만TEU도 달성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은 8.8% 증가한 990만2000TEU, 13.5% 늘어난 68만TEU를 각각 기록해 역대 최고 처리실적을 경신했고, 연안화물 역시 28.2%가 늘어난 33만5000TEU로 대

현대삼호重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호응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오병국)이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글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5일 복지시설인 한마음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학반’ 개강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어 이학반’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매주화·목요일 주2회 운영되며, 베트남과

우즈베크 근로자 60여명이 등록해 한국어 기초와 실용회화 등을 배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개발은 물론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업무능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돼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 내에는 베트남·우즈베크 등 700여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다.

/박정우기자 jwpark@

새로운 개념의 MY-MO 1인당 미이모

효자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려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세계의 아침

SBS 아침마당

MBC 새마을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건적이나 덤핑건적은 놓지 않습니다.

코스피지수	1,894.31 (+5.66)
코스닥지수	497.51 (+4.82)
금리 (국고채 3년)	3.50% (-0.03)
원·달러 환율	1,132.30원 (+3.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미국 소비자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아반떼, 스포티지R, K5가 미국 컨슈머리포트지 10월 특집호가 선정한 추천 차종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기존 추천차량인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그랜저, 쏘나타, 쏘나타, 베라크루즈, 투싼ix, i30를 포함해 9개 차종이, 기아차는 쏘울, 포르테, 쏘렌토R을 포함해 총 5개 차종이 컨슈머리포트지가 선정한 추천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소비자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종들이 품질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브랜드별 신뢰도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